

탈냉전 시대의 아프리카 지역학:
수단 분쟁 연구의 분석수준 변환 모색

최 동 주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2004. 11. 11

I. 서론

전통적으로 지역학(area study)은 다양한 인문학과 사회과학 세부학문 분야간의 일대일 연계(interdisciplinary) 연구를 지향하면서 연구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해왔다. 최근에는 지역학 분야에서 모든 인문사회과학 세부학문의 통합적 접목연구(transdisciplinary)를 통해 특정연구분야의 경쟁력을 배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현실주의적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관계 분야의 연구는 여전히 국가를 그 행위주체로 설정한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설명하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학 분야의 비판적 학자들의 사회과학 재구조화 및 개방에 대한 주장들은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¹⁾

일반 사회과학의 행태주의 접근방법의 도입은 사회과학에 대해 보다 생물학적인 정향의 연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제반 자연과학 분야에서 이루어낸 현대사 속에서의 학문적 업적들은 사회적 역학의 복잡성 심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진지하게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다루어져야 함을 교훈으로 던지고 있다. 화이트헤드(A.N. Whitehead)는 인간의 사회생활을 연구하는 사회과학도들이나 자연과학도들은 필히 지구세계의 환경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가시성(可知性)을 요구하면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공유해야만 하는 보편적 사상체계의 확립을 설파한 바 있다.²⁾ 학문제반 분야에 있어서 인류의 이상향(utopias)을 지향하는 학문적 연계의 필요성, 즉 cross-breeding 성격의 세부학문 분야간의 공동연구협력을 화이트헤드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학 분야의 연구경향은 위와 같은 논리에 바탕을 두고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경향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³⁾

특히 정치적인 인종갈등이 저개발 지역의 다민족 국가들을 분열시키고 정치 불안정 속에 몰아 넣고 있다고 인식되는 상황 하에서 국제사회는 생태적 환경과 관련된 분쟁의 요인과 배경들을 문제시하여 국가의 안위문제를 재 정의할 시간적이고 재정적인 여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UNEP 등의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관들은 전쟁으로 인한 환경

1) 예를 들면 Immanuel Wallerstein, et.al., *Open the Social Sciences: Report of the Gulbenkian Commission on the Restructuring of the Social Scienc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2) A. N.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New York: McMillan, 1978, p.3.

3) 숙대 국제관계대학원 사이트의 외국 국제학 전문기관 사이트 링크를 참조.

<<http://sookmyung.ac.kr/~gsis/main.html>>

피해와 지역경제 개발과정에서 비롯되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간 갈등이나 경제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서의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는 부차적인 과제로 밀려나 있다.

이러한 편향된 시각은 수단의 분쟁을 분석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수단은 이른바 “끝이 안 보이는 내전”에 시달려 온 나라이다. 4천만 명이 채 안되는 인구를 지닌 이 나라는 독립 이후 지난 40여 년 간 내전에 신음하면서 약 4백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켰고 2백만 명 이상이 전사하거나 내전으로 인한 질병 등으로 사망했다.(Prendergast 2002, 29) 그러나 수단과 주변국간 혹은 내부 갈등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아랍인종과 아프리카 원주민, 기독교와 이슬람이라는 충돌 매트릭스를 중심으로 한 분석이 그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수단의 사례는 물론 다른 아프리카의 분쟁 사례들에 대한 연구는 생태학적 요인과 배경을 축으로 한 새로운 연구방향의 제시를 요구받고 있다. 생태적 요인들은 식민지 시대를 포함한 역사적 경험과 전통적으로 주변국가와 겪고 있는 자원 갈등 등의 경험과 역사를 포함한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내전 연구에 있어서 인류생존을 위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기초자원 즉 수자원을 둘러싼 대내외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수단의 분쟁을 재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주제에 대한 개념적 검토

안보(security) 개념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군사적이고 물리적 측면에서의 국가안보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세계 경제무역 시스템이 이른 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중심의 ‘과두체제’ 하에서 여타국들의 강제적 편입을 통한 통합을 추구하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강요된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국가 이외에 국제관계 행위 객체들이 새로운 연구대상들로 떠오르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기존의 전통적 개념의 국가안보는 이른바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라는 복합적 개념으로 정의되기 시작하였다.

포괄안보 개념의 등장은 전세계적으로 각 국가 혹은 국제사회의 계층별 객체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의 분배 문제로 인한 국가나 객체들의 경제적 차원의 안보는 물론, 국가의 안위와 생존을 결정짓는 환경, 자

원, 식량 등의 생태적 문제의 안보를 포함하는 국제관계의 새로운 연구수준과 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강요된 세계화'는 한편으로는 이른바 서구의 가치(occidentalism)와 동양의 가치(orientalism)의 충돌을 야기시킴과 동시에 상대주의(relativ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에 대한 논쟁을 가속화 시켰다. 객관적 가치의 창출을 추구하기 위한 이러한 논쟁들은 인간 자체의 존재가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주관적 관점의 충돌과정에서 제기된 인간존엄성에 대한 가치의 확인은 국제관계의 새로운 연구영역을 제공하였다. 포괄안보 개념을 구성하는 생태관련 안보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 개방화 시대의 남북간 가치의 충돌과 맞물리면서 인간존엄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결과를 낳았다.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인간안보 문제는 냉전 기간동안 국제정치의 주요 연구개념에 포함되지 않은 채 이른바 '하위정치'(low politics)의 수준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냉전종식과 함께 지구적 차원의 파급효과를 수반하는 생태계 문제와 이로 인한 인류 존속의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면서 개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 생태계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인간안보의 담보는 긴밀한 국제협력 메커니즘의 기능을 그 전제로 한다. 인간안보의 문제는 주권국가로 구성되었고, 국제사회의 계층별 구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최근의 국제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고도의 협력과 정책조화의 필요성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결국 인간안보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연구수준과 단위를 설정할 때, 이 연구대상과 연관성을 갖는 주요 협정과 레짐의 형성과정, 제반 관련 규범, 이러한 규범의 이행을 위한 국제적 제도 및 절차의 문제점, 이의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성패를 결정하는 정치 경제적 요인은 여전히 분석수준과 분석단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남는다.

한편 경제개발, 환경보존, 인권, 여성, 아동 등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적 쟁점이나 과제들에 대한 국제 시민사회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INGOs들의 참여활동 영역은 확대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일반적인 사회적 문제들도 개별 주권국가 차원의 문제를 넘어 전지구적 성격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전지구적 시민권(global citizenship)이나 전지구적 시민의식(global civic ethic)

등의 새로운 개념들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건설적인 전지구적 차원의 지배구조(constructive global governance)⁴⁾에 대한 출현요구가 INGOs로 집약되고 있는 세계시민사회(global civic society)의 이익의 확대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흥미롭다. 따라서 새로운 안보개념과 관련된 제반 사회적 쟁점들은 개별국가의 관리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연구의 차원을 넘어 정부간 혹은 비정부기구간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⁵⁾

이런 방향의 효율적 연구를 위해서는 국제기구라는 기존의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연구과정에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UN 및 산하의 국제기구들이 198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제기해온 인간보호 및 인간개발을 위한 새로운 정책비전의 제시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UN 중심의 국제기구들이 월츠가 제시한 세 번째 이미지(the third image)인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으로부터⁶⁾ 아직 자유롭지 않은 분석단위라면 연구의 방향은 수정을 요구받는다. 이는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부의 분배 문제와 인류공동관심사의 공동해결이라는 명제를 위해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정책집행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국제기구, 즉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참여도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UN 및 관련 산하기관들의 참여가 월츠가 제시한 세 번째 이미지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인간안보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의 분석수준은 기존 국제기구의 정책방향과 더불어 새로운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새롭게 국제사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계층의 이익 보호를 위한 연대를 추진해오고 있는 국제비정부민간기구(INGOs)에 대한 병행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보통국가로 분류되는 국가사회의 경우 이미 비정부민간기구(NGOs 혹은 NPOs)들은 일반정치과정에 있어서 시민의 정치적 이익을 수렴하고 표출하는 정당과 의회의 행정부 이익집행과정의 견제 기능까지도 수행하고 있다.⁷⁾

INGOs의 경우 그 기능과 활동의 영역, 그리고 견제의 대상에 있어서 더 광범위하다. 이들은 주로 제기되고 있는 생태, 인권 등 주요 인

4) Oran R. Young, *International Governance: Protecting Environment in A Stateless Societ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5) 김영래, “한국 비정부단체(NGO)의 세계화 전략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7(1), 1997, pp.236-237.

6) Kenneth Waltz, *Man, the State an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7)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경숙 외, 『새천년사회의 지식창출: 정치과정의 지식경영』, 새천년위원회 회보고서, 2000. 11. 30 참조. 선진국과 후진국 NGO의 기능과 성격에 대한 차이점과 개념정의는 김영래, *op.cit.*, 참조.

간안보와 연관된 국제사회의 이익을 지역과 계층별 국가별 구분에 관계없이 수렴, 표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견제의 대상도 국제기구 뿐 아니라 각 주권국가의 운영주체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기존 국제기구들의 활동에 의한 국제사회의 영향보다 최근에는 INGOs의 영향력이 주권국가의 국가이익 추구과정과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제학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남북간의 가치의 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면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의 종교적 사회적 가치에 기초하여 태동한 대부분의 INGOs들은 인간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해석이나 접근에 있어서 많은 후진국의 입장과 갈등을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계층간 가치의 충돌과는 또 다른 차원의 국제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일반정보의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인간안보 문제와 국제기구 혹은 INGOs의 연관성에 대한 자료들은 매우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INGOs를 통한 국제사회의 고발이 온라인 상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달되고 있고 이에 대한 주권국가나 국제기구들의 대응과 국제시민사회의 동참이나 지지 혹은 비판도 그 속도를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연구자들에게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다양한 분석수준과 단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III. 아프리카 지역학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1. 분석단위의 새로운 모색

지역학 분석대상 및 수준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위해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국제관계의 연구영역과 쟁점들과 이에 적절한 분석수준과 단위의 선정을 위한 접근방법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는 현실주의 국제관계 접근론에 대한 비판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설명되며 이러한 설명은 사회현상을 보는 시각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성격에 기반한다.⁸⁾ 특히 안보개념의 변화와 새롭게 등장한 인간안보, 포괄안보 등

8) 필독문헌은 신옥희, “분석수준과 분석단위에 관한 새로운 논의,” 김달중 외 공편,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영역과 쟁점』, 나남, 1995; 이수훈 역, 이매뉴엘 월러스타인 외, 『사회과학의 개방』, 당대, 2000; 함재봉, “포스트모더니즘과 현실주의 담론의 해체,” 김달중 외 공편, *op.cit.*; A. Yurdsev,

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이러한 개념들이 하나의 연구단위로서 국제기구와 INGOs와 갖는 연관성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⁹⁾ 국제기구 및 INGOs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배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냉전/탈냉전 시대의 UN 중심 국제기구 개념과 유형을 기능적으로 구분하고 한계점을 모색하며, 국제기구의 정책적 지향방향이 미국의 소극적 참여 이후 인간안보 중심으로의 변화해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으로써 인간안보와 국제기구의 긴밀한 연관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¹⁰⁾ 더불어 INGOs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추세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국제행위자로서의 정체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¹¹⁾

"'Level of Analysis' and 'Unit of Analysis': A Case for Distinction," *Millenium*, 22(1), 1993; Barry Buzan, *People, States and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London: Lynn Rienner, 1991로 제시되며, 논리적 순서에 의해 논의된다.

9) 국가안보 개념의 새로운 해석은 기존의 전통적 안보개념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특히 군사안보에 치중되어 온 기존의 안보개념은 국제환경의 현실적인 흐름을 왜곡하는 오류를 낳을 수 있고 비군사적 분야(특히 경제, 생태계 문제 등)의 주요 이슈들을 간과하여 국가의 총체적 안보능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 새로운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적 논의는 Dietrich Fisher, *Nonmilitary Aspects of Security: A Systems Approach*, Dartmouth: UNDIR, 1993; Barry Buzan, *People, State and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London: Harvester Wheatsheaf, 1991; Jeffrey B. White, "A Different Kind of Threat: Some Thoughts on Irregular Warfare," <<http://www.odci.gov/csi/studies/96uncclas/irregular.htm>>을 참조. Ole R. Holsti, "Model of International Relations: Realist and Neoliberalist Perspectives on Conflict and Cooperation," in C.W. Kegley Jr., and E.R. Wittkopf, *The Global Agenda: Issues and Perspectives*, New York: McGraw-Hill, Inc., 1995, pp. 131-132(전통적 물리적 군사안보); David A. Baldwin, "Security Studie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World Politics*, 48, October 1995, pp. 126-129.(탈냉전과 새로운 안보개념의 모색); Ashton B. Carter, William J. Perry and John D. Steinbruner, "A New Concept of Cooperative Security," *Brookings Occasional Papers*,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2(포괄안보 개념의 이해); Jorge Nef, *Human Security and Mutual Vulnerability: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nt*, 2nd edition, IDRC, 1999(인간안보에 대한 IPE 접근); "Human Security: New Thinking and New Actions for a New Millenium," *Canada World View, Special Edition*, Fall 1999(캐나다의 외교정책과 인간안보에 대한 접근 방향 검토). 캐나다는 인간안보 위주의 외교정책이 국가외교의 기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부분의 상세한 사례 및 배경에 대한 조사는 캐나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방문 조사한다. <<http://www.dfait-maeci.gc.ca/foreignp/humansecurity/>> 아스핀 교수의 국가안보와 국제정치라는 과목의 실라부스는 상당한 양의 온라인 논문들을 제공하고 있다. <<http://www.bradley.edu/las/pls/302ns.htm>>

10) 국제기구의 생성배경과 역사적 발전과정 그리고 최근의 정책지향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강성학, "현대 국제기구이론과 포스트냉전시대의 유엔헌정질서," 김달중 외 공편,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영역과 쟁점』, 나남, 1995; David Armstrong, *The Rise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 Short History*, London: McMillan, 1982; Harold Jacobson, William Reisinger and Todd Mathers, "National Entanglements in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10, March 1986, pp. 141-159; Heidi Hudson, "Victims, exploiters or conservationists? Contextualised dynamics of linking gender, security and environment", *Mots Pluriels*, 11, September 1999<<http://www.arts.uwa.edu.au/MotsPluriels/MP1199hh.html>>이 필독 문헌으로 제시된다. 또한 이 부분의 적절한 사례연구는 미시간주립대학 정치학과와 Barry Stein 교수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사안별로 상세히 조사한다. <<http://www.msu.edu/user/stein/>>. 또한 UN 산하 기구들에 대한 자료는 미시간주립대의 온라인 자료를 활용한다. <http://www.lib.msu.edu/publ_ser/docs/igos/igoorg.htm>

11) 이신화, "NGO와 국제사회: 국제개발 NGO의 위상 및 활동전략," 김유남 외, 『21세기 국제 관계 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편, 2000, pp.311-329; Shin-wha Lee, "The Rise of NGO in International Relations," *Korea Observer*, 31(1), Spring 2000.



인권문제는 인간안보의 제반 분야에 연결되는 핵심적인 연구분야이므로 국제사회의 계층별, 발전단계별, 지역별 접근의 차이와 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문에 대한 이해는 접근별 검토보다는 비교분석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구중심의 인간관과 비서구적 가치관의 차별적 존재 여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현재의 쟁점을 역사사회학적 관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편주의의 허구와 상대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대비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난민 등 제반 인권문제를 서구식 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해서 지극히 협소한 개념정의를 내리고 있는 국제엠네스티재단을 비롯한 INGOs의 정책가치에 대해 조심스런 접근을 유도하고, 발전단계별 혹은 종교문화적 관점에서의 인권문제 접근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화두에 오르고 있는 비서구적 가치와 인권에 대한 다양한 논점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¹²⁾

12) John Ingleton, "The Asian Ethic," in *Negotiating the Pacific Century*, edited by Roger Bell and others, The Australian Centre for Asian Studies, 1996; Harry Harding, "Promoting Human Rights in Asia: American and Australian Approaches," in *Negotiating the Pacific Century*, edited by Roger Bell and others, The Australian Centre for Asian Studies, 1996; Canada Asia Working Group. "Brief on Human Rights in Burma." Prepared for UNCHR Meeting, Geneva, January 1994; Stephen A. Douglas and Sara U.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US-ASEAN Discourse on Human Rights." *Pacific Affairs*. 69/1.Spring 1996; John L. Gaddis, "On Moral Equivalency and Cold War History."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10. 1996; Lee Tai To. "Beyond Containment: The Future Utility of the US Military Presence in the Asia-Pacific - A View from Southeast Asia." Internet. 1997; Mahathir Mohamed, "The Asian Values Debate." Speech to the 29th PBEC International General Meeting. May 1996; Clark D. Neher, "Asian Style Democracy." *Asian Survey*. XXXIV, 11. 1994. pp. 949-961; Articles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iversal Ethics and Asian Values, 국제학술회의, 1999. 10. 4-6 등의 연구물들을 필독한다.

이어 인권과 관련된 아동, 여성, 난민 등의 국제적 이슈¹³⁾와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별 인권문제 등에 대해 관련 국제기구의 대응방향 및 현황과 인권관련 INGOs 입장에 대해 매트릭스형 이해를 모색해야 한다.

2. 엔트로피 중심적 사고를 통한 생태계 문제의 인식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은 그 동안 무한한 자연, 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를 전제로 해왔다. 그러나 이런 전제 하의 현대사회과학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강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엔트로피(entropy)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 전제된다면 공업위주의 사회는 생산적이 아니라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선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개념정리는 인간안보 요인중 환경과 자원에 관련된 이슈들을 이해함에 있어 필수적이다.

경제학자들은 근대공업의 높은 경제성은 뛰어난 기술력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뛰어난 에너지 즉 퍼올리면 사용할 수 있는 석유나 석탄 때문이다. 산업혁명은 다양한 공업기계의 발명에 의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 기계를 움직이는 에너지 자원의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가 고갈되면 현재와 같은 공업사회는 유지되기 힘들다. 경제적으로는 생산이라 평가되지만 에너지 차원에서는 소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열에너지는 엔트로피(entropy: 물체의 열역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양)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며, 엔트로피증대법칙에 따르면 현재 산업사회는 계속적으로 고갈상태에 있는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기에 이는 영구적일 수 없다. 경제학 등 사회과학에서는 석탄이나 석유의 채굴을 생산이라 인식하고 있지만, 생산된 화석연료는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어 경제적 가치를 낳으며 소멸해간다. 이는 생산이 아니라 소비되어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제발전은 환경적인 문제 뿐만아니라 열역학적인 관점에서 자연을 파괴한다.”는 관점에 대

13) UN 사무총장의 정책비서관인 Graca Matchel의 군사분쟁과 아동에 대한 논문은 상당한 사례를 통해 국제사회의 아동학대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Graca Matchel, "Impact of Armed Conflict on Children," Selected Highlights, UN, 1995.<http://www.un.org/rights/h_rights.htm>; 히로시마 핵투하로 인한 인권피해상황은 관련 홈페이지 <<http://www.pcf.city.hiroshima.jp/peacesite/English/Stage1 /1-1E.html>>를 참조. 난민문제에 대한 일반적 논의는 Barry N. Stein, "The Experience of Being a Refugee: Insights from the Research Literature," in Chapter 4 of Carolyn Williams and Joseph Westermeyer, ed., *Refugees and Mental Health*, London: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1980과 UNHCR의 연구논문 및 사례조사물들을 활용 <<http://www.unhcr.ch/pubs/pubs.htm>>.

한 이해가 교육과정에서 우선되어야 한다.¹⁴⁾

이러한 주장은 환경문제를 둘러싼 선/후진국 간의 관점과 정책의 갈등에 있어서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상이한 해석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돕는다.¹⁵⁾ 생물은 저엔트로피의 물이나 식량을 섭취하고 고엔트로피의 폐기물이나 폐열을 방출함으로서 증가하는 엔트로피를 방출해 자신을 유지한다. 이러한 엔트로피들이 지구적인 차원에서 축적되면 열사상태에 이르지만, 지구에는 대기순환과 물순환에 의해 지상에서 증가된 엔트로피를 우주에 버리는 구조가 존재한다. 즉 지구상에는 태양빛으로 에너지를 얻지만 대기순환과 물순환에 의해 우주로 저온을 방열하며 고엔트로피를 버리고 있기에 생태계가 유지된다. 하지만 현재의 생산과 소비의 진행과정을 엔트로피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나 물질은 이용가능한(available) 상태에서 이용불가능한(unavailable) 상태로 열화시키지만, 순환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 현재 사회과학은 자원고갈과 폐기물 같은 지구차원의 열역학적 제약을 무시하고 성장을 논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열역학적 관점보면 현재의 환경-생태 문제는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이러한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제정치의 주요행위자인 국가에 대한 제약이 있어야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와 INGOs의 활동에 대한 조사를 사례연구를 통해 실시한다.¹⁶⁾

14) 생태학적 관점에 기초한 현대사회과학의 생태문제 접근에 대한 비판과 entropy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 나카무라 오사무, 전운성 역, 『경제학은 왜 자연의 무한함을 전제로 했는가』, 한울, 1999을 필독한다.

15)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남북간의 시각차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Dennis Pirage, "The Origin of Ecopolitics," in Richard Falk, ed.al., *Toward A Just World Order*, Westview Press, 1982; Paul Kennedy, *Preparing for the Twentieth Century*, Fontana Press, 1994, Ch. 6; Eric Reitan, Pragmatism, Environmental World Views, and Sustainability, *Electronic Green Journal*, Special Issue 9, December 1998<<http://egj.lib.uidaho.edu/egj09/reitan1.html>>을 필독한다. 생태윤리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적 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Environmental Ethics <<http://www.cep.unt.edu/>>; Paul H. Reitan & Eric Reitan, "Our Unsustainable Present: Why, and What Can We Do About It?" *Electronic Green Journal*, Special Issue 9, December 1998. <<http://egj.lib.uidaho.edu/egj09/reitan2.html>>; Andrew Steer, "Ten Principles of the New Environmentalism." <<http://www.worldbank.org/fandd/english/1296/articles/0111296.htm>>; The Report of the South Commission, *The Challenge to the South*,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Ch. 6; Matthew B. Arnold, *The Next Bottom Line: Making Sustainable Development Tangible*, World Resources Institute, 1998 <<http://www.wri.org/wri/wri-pubs.html>>; The Earth Net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www.ecouncil.ac.cr/>>; Chester L. Cooper, "Sustainable Development -- A Slogan or a Strategy?" <<http://www.his.com/~cosmos/cooper.html>>; THE ORIGIN OF THE TERM "SUSTAINABLE DEVELOPMENT" <<http://www.cc.colorado.edu/Dept/EC/sangres96/sustainable/history.html>>; What is Sustainable Development? <<http://iisd1.iisd.ca/sd/define/chron.htm>>; 김판석/사득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와 개념정립," 『한국정치학회보』, 32(4), 1998 겨울을 읽고 토론을 통해 객관적 개념정의를 추구한다.

16) 이를 위해 INGOs의 대응 배경에 대한 논의는 이신화, "환경전쟁? : 폭력갈등과 국제질서 위협요

기존 관련연구가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의문을 받는 생태계문제의 다자협력에 대한 제도적 접근, 무역과 생태계 이슈의 연계성에 대한 또 다른 국제법/제도적 연구에 치중해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기구나 레짐의 제도적 접근의 한계성을 분석하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생태관련 INGOs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활동 사례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사례연구는 기후변화 및 대기과 에너지,¹⁷⁾ 수자원,¹⁸⁾ 생물다양성 보존과 생태관련 지적재산권,¹⁹⁾ 인구²⁰⁾ 등 다양한 분야에

인으로서의 환경과괴," 『한국정치학회보』, 30(3), 1996 가을을 선독하고 주권국가의 정책집행 한계성에 대해서는 노진철, "환경문제에 대한 정치의 적응능력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30(4), 1997 겨울을 선독시킨다.

- 17) 이민룡, "자원위기론의 개념적 논의와 국제적 쟁점," 김달중 외 공편,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영역과 쟁점』, 나남, 1995; 변창구, "남중국해 분쟁과 아세안의 다자주의적 접근," 『국제정치논총』, 37(3), 1998; Robert O. Keohane, *After the Hegemon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III-10; Walter Youngquist, "Alternative Energy Sources - Myths and Realities," *Electronic Green Journal*, Special Issue 9 December 1998<<http://egj.lib.uidaho.edu/egj09/youngqu1.html>>; 최동주 외, 『동북아 국가의 에너지 소비와 월경성 오염문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Internet "COP-4 Adopts 'Buenos Aires Plan of Action" (Earth Negotiations Bulletin) <<http://www.iisd.ca/linkages/climate/ba/>>; Internet "Climate Talks Turn Into Business Convention" (Corporate Watch)<<http://www.igc.org/trac/feature/climate/update1.html>> 등을 통해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 18) 수자원 국제갈등과 댐정치(hydropolitics)에 대해서는 Video 자료, "하나뿐인 지구: 물의 장막"; 최동주, "메콩강유역 개발과정에서 환경·자원 갈등문제에 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6, 1998. 1; Dam Impacts <<http://www.sandelman.ocunix.on.ca/dams/>>; Three Gorges Dam, <<http://twist.lib.uiowa.edu/gec/gec-password/cases/ThreeGorges.html>>, <<http://theory.caltech.edu/people/ckchow/hkf/TGP/>>; Large Dams, <<http://www.uwsp.edu/acaddept/geog/courses/geog340/LargeDams.htm>>; THE THREE GORGES DAM IN CHINA Forced Resettlement, Suppression of Dissent and Labor Rights Concerns Human Rights Watch, February 1995, 7(2) <<http://www.hrw.org/hrw/summaries/s.china952.html>>; Mike Young, "Water Rights: An Ecological Economics Perspective," ANU Working Paper No. 9701, 1997; Stephen Libiszewski, "Water Disputes in the Jordan Basin Region and Their Role in the Resolution of the Arab-Israeli Conflict," ENCOF Occasional Paper 13, 1995 <<http://www.fsk.ethz.ch/encop/13/EN13.HTM>>; Itamar Yaar, "Water Disputes As Factors in the Middle East Conflicts," Mimeo; J. Anthony Allan, "Middle East Water: Local and Global Issues," SOAS Mimeo <http://www.soas.ac.uk/Geography/WaterIssues/Papers/9508ta1_01.html>; Philip Hirsch and Carol Warren, *The Politics of Environment in Southeast Asia: Resources and Resistance*, Routledge, 1998, Part II; David Grey, "Water and the Poor: Visions and Actions for 2025," An ODI-SOAS Meeting Series Leading up to The Second World Water Forum and Ministerial Conference, 17-22 March 2000 등의 자료를 배분하여 리딩하고 토론한다.
- 19) Biodiversity Information Network <<http://www.bdt.org.br/bin21/bin21.html>>; Internet "What A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TO) <<http://www.wto.org/intellect/intell1.htm>>; Internet "Control Over Genetic Resources" (Mugabe and Ouko) <<http://www.pscw.uva.nl/monitor/2104.htm>>; Jay O'Laughlin, "The Political Economy of Endangered Species Conservation," *Electronic Green Journal*, Special Issue 9, December 1998; Internet "Body and Soul: The Price of Biotech" (Bereano)<<http://weber.u.washington.edu/~radin/body.htm>>; Internet "Patent Pending: The Race to Own DNA" (Bereano); <<http://weber.u.washington.edu/~radin/guaymi.htm#patent>>; Internet "Indigenous Person from Papua New Guinea Claimed in US Government Patent" (RAFI) <<http://www.rafi.ca/pr/release01.html>>; Internet "The Human Genome Diversity Project and Its Implications for Indigenous Peoples" (Harry) <<http://www.igc.apc.org/iatp/ipr-info6.html>>; Internet "Answers to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Human Genome Diversity Project" (HGDP North American Committee)

걸쳐 살펴본 후 그 시사점을 아프리카 대륙의 관점에서 우선 이해하고, INGOs와 국가 및 IGOs 간 시각의 차이를 개념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다.

3. 국제범죄 차원의 인간안보

마약 및 무기의 트래피킹 이슈는 사안이 특정 국가사회와 개인의 치안을 위협할 뿐 아니라, 아동을 물리적 분쟁에 참여시키는 등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inology) 문제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마약의 경우 토질의 변화로 인한 농업생산성 하락은 대부분의 생산지가 저개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농본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생산지가 곧 소비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해당국가나 지역의 전반적인 보건영양 문제와 아동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마약문제는 직접적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무기밀매의 경우 종교적 혹은 인종적 갈등의 물리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대개의 무기생산국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과거 공산주의권의 아프리카 저개발국들로서 냉전 이후 국가수입의 주요 물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²¹⁾

마약이나 무기밀매의 경우 국제사회에 공통된 위협의식이 존재하고

<<http://www-leland.stanford.edu/group/morrinst/HGDP-FAQ.html>>; Internet "Proposed Human Genome Diversity Project Still Plagued by Controversy and Questions" (Kreeger) <http://165.123.33.33/yr1996/oct/kreeger_pl_961014.html>; Internet "An Overview of the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Agreement" (WTO); <<http://www.wto.org/intellect/intell2.htm>>; Internet "The Biodiversity Treaty Challeng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rzulla and Reifschneider) <http://fed-soc.org>; Internet "Plant Patenting Provision Reviewed in WTO" (Wijk)<<http://www.pscw.uva.nl/monitor/3403.htm>>; Internet "TRIPS and the Environment" (Shiva); <<http://www.southbound.com.my/souths/twn/title/trips-ch.htm>>

- 20) United Nations Population Information Network <<http://www.undp.org/popin/popin.htm>>; David Pimental, "Population Growth and the Environment: Planetary Stewardship," *Electronic Green Journal*, Special Issue 9, December 1998 <<http://egj.lib.uidaho.edu/egj09/piment1.html>>. Harvard Center f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의 온라인 연구논문들은 인구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INGOs의 활동에 대한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http://www/hcpds/workingpapers.html>.

- 21) 무기 밀수입으로 인한 비공식적 군사비용 증가추세와 이로 인한 인간안보 피해 현황은 "Redirecting Military Spending to Human Security," Background Paper for Jubilee Campaign, April 2000; Ken Epps, "Arms Trade Code of Conduct: Human Security and an Arms Trade Code of Conduct," Ploughshares, June 1999의 리딩을 통해 파악한다. 소형무기의 밀매를 감시하기 위한 INGOs의 활동은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는데, International Action Network for Small Arms(IANSA)의 활동사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http://www.iansa.org/mission/index.htm>> 무기밀매 지역의 분쟁으로 인한 아동인권 유린 현황에 대해서는 유엔인권위의 홈페이지 <http://www.un.org/rights/h_rights.htm#law>를 참조한다.

이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문제의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INGOs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편이다. 그러나 캐나다와 같이 인간안보를 외교정책의 골간으로 하는 국가나 북부국가들을 중심으로 UN의 통제기능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마약과 무기밀매 행위의 주 지역인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 협력과 계몽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²²⁾ 특히 무기밀매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노력은 미국 등 무기생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마약과 무기 트래피킹에 대한 학습은 위의 여타 인간안보 위협요인에 대한 분석 매트릭스와는 다르게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특정지역의 구조적인 경제 및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요 생산지역에 대한 기초학습을 우선하고 있다. 그 후 UN 중심의 밀매 통제기능의 발전과 사례²³⁾ 그리고 기능의 한계를 짚어보고, 다른 이슈에서 나타나는 INGOs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외교적 활동의 사례를 조사하여 국제사회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것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IV. 나일 유역 분쟁과 수단 내전: 수자원 갈등을 중심으로

1. 분쟁과 수자원

1.1 수자원의 중요성과 경제학적 분석의 한계

지구는 13억 8천 5백만 km^3 의 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인간생활에 활용되는 민물의 양은 48만 km^3 에 불과하다. 이 2퍼센트의 물 가운데 21퍼센트가 아시아, 26퍼센트가 북미주, 28%가 아프리카 대륙에 있다. 전문가들의 계산으로는 육지에 내리는 비의 양은 매년 12만 km^3 로 얼음을 제외한 전체 민물량의 4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한다. 민물의 4분의 1 정도가 매년 새 물로 바뀌어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22) CanadaOAS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취지와 정책협력의 지향 방향에 대한 리등은 Canada World View, Issue 8, Summer 2000의 "Canada and OAS" 부분을 참조한다.

23) UNODCCP(UN Office for Drug Control and Crime Prevention)는 매우 소중한 사례들을 온라인 출판물로 제시하고 있으며 수강생들은 이 사이트에 공개된 연구물들을 토대로 사례들을 연구한다. UNODCCP의 홈페이지는 <<http://www.odccp.org>>이다.

유엔 산하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수준이지만 세계인구가 77-112억 명이 될 금세기 중반에는 20억-70억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에 국제기관이나 단체들은 ‘물 부족에 따른 인류의 재앙’을 경고하고 있다. 2001년 유엔산하 국제기후변화회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2001’ 보고서를 통해 “21세기 지구는 고온, 가뭄, 홍수 등의 이상 기후와 인구증가로 극심한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계은행도 “20세기에 석유가 국가간 분쟁의 원인이었다면 21세기에는 물이 분쟁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을 둘러싼 국가간의 분쟁이 시작된 지는 오래다. 가장 심각한 지역은 요르단 강과 나일강이 흐르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이다. ‘생명수’인 요르단 강을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의 다툼이 3차 중동전을 촉발했으며,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이집트, 수단 등 아프리카 8개국 간의 나일강 차지하기도 계속되고 있다. 터키와 시리아, 이라크도 유프라테스 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 12개국을 관통하는 다뉴브 강, 인도, 방글라데시 접경의 갠지스 강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처해 있다.

이처럼 여러 나라를 걸쳐 흐르는 ‘다국적 강’은 전세계에 214개에 달하고 세계인구의 40퍼센트가 인접국의 물에 의존하고 있어 물 분쟁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등은 공개적으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인접국들과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엔도 수리권(水利權)을 두고 벌어지는 국가 간 분쟁을 긴급한 국제 이슈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국가간 대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발전을 상정하고 그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아프리카 주민들의 생활기반이 농업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해답은 개방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기저의 농업시장 개방을 압력 하에서도 생존력을 지닐 수 있는 대안에서 찾아야 한다. 가이슬러와 같은 학자들은 그 해답을 환경친화적 토지개혁 등 농업개혁 정책에서 찾으려고 한다(Geissler 2000).

이제 물은 공업사회의 화석자원과 같은 가치로 인정되어야 한다. 물은 언제 인류에게 필요한 자원이었던 만큼 무제한 가용한 자원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지 않았다. 경제적 가치라는

것은 제한된 자원을 전제로 가능하다. 경제란 수요만큼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재화를 창출하는 과정과 그 상품의 유통과 보시를 뜻한다. 물은 증가하는 인류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개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품귀해지고 그 희소성의 가치는 날로 증대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에너지원인 석유가 오늘의 중요한 경제재로서 국가와 국가, 인종 간의 긴장과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긴장과 분쟁을 야기시켜온 것은 최근까지 경제재로 인식되지 않았던 물이다. 사막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고, 원래 수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류가 집단적 거주를 시작하면서부터 수자원을 둘러싼 분쟁은 이어져오고 있고, 더욱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이데올로기 냉전시대에 수자원과 같은 환경이슈는 국제관계의 하위정치(low politics)로 분류되었기에 국제사회나 학계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단지 UN 등 국제기구의 안보의제에 환경부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오존층 파괴, 토지부족, 식수고갈, 국경을 초월하는 오염문제 등 환경훼손이 국제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여파에 대한 우려와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감에 따라 국제사회는 환경과 자원 문제를 중요한 안보상황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2년 6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UN Conference on th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이후 전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취되었다. 본격적으로 국제관계, 정치학, 경제학 등 제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자원고갈과 오염 등 양·질적인 환경문제가 어떻게 기아, 가난, 인종갈등, 정치적 불안정 등 사회의 제반 여건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주권국가의 정당성과 통치력을 약화시키는가에 대하여 논의해오고 있다.

경험적으로 환경에 대한 당사국별 부담이 다양한 갈등의 표면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왔지만,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요인들에 가려져 국제관계의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독립변수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인구나 환경문제가 갈등에 미치는 역학관계를 인식할만한 개념 틀이 적합하지가 않고, 사례연구 등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자원확보 경쟁으로 생기는 갈등은 각 이익관련 행위주체들이 갈등

자체를 한쪽이 완전히 승리하지 않으면 완패할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는 데서 발생한다.²⁴⁾ 천연자원 중 인간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 사용권의 확보와 주변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는 강의 수로를 지배하기 위해 발생하고 있는 분쟁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두 국가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강의 유역은 세계에 214개 정도로서 세계인구의 약 40퍼센트가 거주하고 있다. 국경을 가로지르는 강을 공유한 국가들 간의 갈등은 기본적인 식량생산과 경제발달을 위해 제한된 자원을 공히 나누어야하는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상론에 입각하여 국제관계를 본다면 국가간의 자원분배는 국제적인 평등성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천연자원이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갈등의 요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군사/경제력 등에서 앞서고 있는 국가가 주변국들과 공유하고 있는 자원을 독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할 때, 지역 내 국가간 갈등의 소지는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부족은 심각하다. 미국의 세계 물 정책 연구소 소장은 “20세기가 석유확보를 위한 석유전쟁이라고 했다면 21세기는 수자원 확보를 위한 물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는 급속한 산업화와 인구의 증가로 물 부족, 나아가서 수자원을 둘러싼 물 분쟁의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다. 수자원 분쟁의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강은 요르단 강, 나일 강, 다뉴브 강, 갠지스 강 등이며,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면서 메콩 강의 개발에 따른 물 분쟁의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24) 최근처럼 전 세계적으로 경제블록이 국가가 차지했던 국제관계의 행위주체의 위치를 대리하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머지않아 자원소유 및 환경문제를 둘러싼 지역간의 갈등도 표면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표 1> 주요 기관의 미래 물 수급 전망

국제인구행동연구소 (PAI: Population Action Int'l)	1997 현재 물 압박 혹은 물 기근 상태에 있는 인구는 4억 3천 6백만 명이며 2025년경에는 이의 두 배로 증가할 것
미국 NIC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15년에는 세계인구의 절반이 넘는 30억 명 이상이 물 부족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
세계기상기구 (WMO)	2025년 6억 5천 3백만 명 내지 9억 4백만 명이, 2050년에는 24억 3천만 명이 물 부족을 겪을 것
국제식량기구연구소 소장	앞으로 25년 이내에 5개국 중 한 나라가 심각한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
리프 올슨 (Lief Ohlsson)	현재 아프리카 대륙은 인구의 3분의 1이 물 기근 속에 살고 있고 그 인구는 2025년에 1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며, 중동 14개국 중 9개국이 물 기근에 직면해 있으며, 그 중 6개국은 인구가 25년 내에 그 2배로 증가할 것
산드라 포스텔 (Sandra Postel)	향후 30년에 걸쳐 지구 인구는 24억 명 증가할 것인데, 이를 충족하기 위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해 나일강 20개가 더 필요함
모스타파 톨바 (Mostafa Tolba)	수요만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모든 물 관련 프로젝트를 향후 10년 이내에 시작해야함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환경과 자원을 둘러싼 국제 갈등 현상은 선진국 집단과 후진국 집단, 즉 남과 북의 갈등으로 일반화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1980년대 후반 이후 세계경제의 지역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공동이익을 위해 사회 간접자본 구축 중심의 협력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각 저개발지역의 현황을 고려할 때, 이제 협력을 추구해야 할 지역공동체 회원국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갈등 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수자원 분쟁 현황 및 유형

수자원과 그 공급원은 전쟁의 원인이나 도구가 되어 왔으며, 물의 배분은 정치군사적 배경에 의해 중단되기도 한다. 부족한 수자원은 지역적 혹은 국가 간의 마찰과 긴장의 요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쟁들은 인구증가에 따른 농업, 공업, 경제 발전을 위한 수자원 수요의 증가로 인해 증대되고 있다.²⁵⁾

자원이 특정 국가 국력의 핵심적 요인일 경우 군사적 행동의 목표가 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수자원 확보의 노력은 전쟁돌입을 정당화시킬 수 있고, 수자원의 공급원은 군사적 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요소는 물 부족의 정도, 수자원이 공급되는 국가의 범위, 강에 인접한 국가들

25) 수자원과 정치사회적 안정과의 함수관계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Falkenmark(1997)과 Ohlsson(1999)을 참조.

의 상대적인 힘, 다른 별도의 신선한 수자원에 대한 접근의 용이함 등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이념적, 종교적, 지리적 분쟁을 안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는 두 나라 이상의 국경을 지나는 강이 23개나 된다. 이 지역에는 부유한 산유국과 극빈 국이 상존하며, 군사강국과 내전에 찌는 수단과 같은 나라가 있기도 하다. 결국 이런 상황은 한 국가가 수자원의 확보나 독점을 위해 쉽게 군사행동을 고려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나아가서 희소한 수자원으로 인해 관개시설에 의해 물이 배분되는 상황이므로, 수자원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상대국가에게 일격을 가하기 위한 목표로 쉽게 활용될 수 있다.

굳이 9.11. 테러사태를 계기로 심화되고 격화된 미국과 아랍 국가들과의 갈등 정서나 대립을 논하지 않더라도, 한 세기에 걸쳐 대외적 요인에 의해 내재화된 갈등의 구도로 굳어진 아랍-이스라엘 분쟁은, 1970년대 초반 이후 주요 연구의제였던 PLO-이스라엘 문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스라엘과 생태적 환경과 자원을 공유하는 관련 국가들이 과거의 전통적 의미의 역내 분쟁구도의 재현을 우려하게 할 정도이다.(최동주 2002)

1990년대 말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지역은 1950년대 이후 최악의 가뭄사태를 경험하면서 수자원 문제가 지역 정세안정을 위해할 수 있는 최대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다. 요르단 강 유역의 수자원을 둘러싼 긴장과 위기는 과거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독립 국가를 건설하던 과정에서 이미 야기된 바 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수자원 문제에 있어서 요르단과 시리아 등 주변 국가들에 대해 항상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요르단 강 서쪽 제방공사 사건과 이로 인해 발생한 키비아 사건은 그러한 가능성이 이미 이 분쟁을 둘러싸고 잠재해왔음을 증명한다. 1953년 10월 이스라엘은 요르단 강의 DMZ에서 요르단 강수를 이스라엘 영내로 인도하려고 불법공사를 시작했다. 이 사실을 시리아 정부의 항의로 보고 받은 유엔안보리는 이스라엘에 그 공사의 중지를 요청했으나, 이스라엘은 그 행위 자체가 합법적이라고 일단 대항했지만 국제사회의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자, 공사를 그만두고, 즉각 시리아의 키비아 촌을 습격하여 42명의 시리아 인을 살해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시인했으며, 유엔안보리는 1953년 11월 이스라엘군의 키비아 습격에 대한 비판적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또한 시리아가 1965년 요르단 강 상류지역 바니야스 강물을 아랍연맹의 결의에 의해 변경하려는 의도를 보이자, 이를 저지키 위한 군사

공격을 감행한 바 있고, 1976년 요르단과 시리아가 요르단 강 및 야르무크 강 댐 건설 등 수자원 개발노력을 진행했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동원하여 건설지점에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다. 1978년 이집트와의 캠프 데이비드 협정 당시에도 베긴 이스라엘 총리는 모든 팔레스타인 수자원을 지속적으로 통제할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안을 그대로 추진한 바 있다. 1987년 요르단과 시리아가 합의한 알 와흐다 댐 건설계획에 대해서도 강력히 거부입장을 보인 바 있으며, 1994년 라빈 총리의 대 아랍영토협상 당시에도 수자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통제가 전제되었다. 뒤를 이은 바라크 총리의 입장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

한 연구는 1967년 3차 중동전쟁의 원인이 1967년 시리아가 요르단 강 상류이면서 현재는 이스라엘 점령지인 단 지역에 댐을 건설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의 위기의식이 발동하여 중동전이 촉발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Bulloch & Darwish, 1993: 33-34). 1967년 3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한 골란고원은 이스라엘 전체 급수량의 30%를 차지하는 갈릴리호의 주요 수원지로서 안보이익 못지않은 이익충돌의 요인이다. 시리아와의 평화협정을 대가로 골란고원 반환을 추진한 바 있는 이스라엘은 골란고원은 반환하더라도 갈릴리 해변에 완충지대를 형성, 상수도 보호원과 함께 주변국이 수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협상 안을 굽히지 않고 있다.(Ya'ar 1995; Allan 1995)

현재 이스라엘은 점령지 서안지역 총 물 공급량의 80%를 유입시켜 활용하고 있다. 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해수의 유입으로 인해 수질이 크게 악화되어 실질적인 농업활동에 크게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기반의 파탄상태는 이 지역 난민들의 생존에 결부된 문제이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에 이 지역 수자원의 전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²⁶⁾ 시리아와 요르단도 야르무크 강 상류의 댐 건설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시리아는 독자적으로 지역 최대 수원지인 히스바니 강이 있는 골란고원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6) 보다 상세한 내용은 Baskin(1992)을 참조.

<표 2> 주요 국제하천 분쟁 현황

강 이름	분쟁 관련국	주 요인
나일	이집트, 에티오피아, 수단	수량
유프라테스-티그리스	이라크, 시리아, 터키	수량, 댐 건설
요르단-리타니	이스라엘, 레바논	수량
아르무크	요르단, 시리아	수량
인더스-수틀레이	인도, 파키스탄	관개수로
갠지즈	인도, 방글라데시	토양침적, 범람
메콩	중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개발, 수량
파라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댐 건설, 범람
루카	볼리비아, 칠레	댐 건설, 염분
리오그란데-콜로라도	미국, 멕시코	수량, 오염, 염분
그레이트	미국, 캐나다	수로변경
라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오염
엘베	체코, 독일	오염
차모스	헝가리, 루마니아	오염
다뉴브	체코, 독일, 헝가리	수량

한편 메콩 강 유역 국가들이 잠재적으로 안고 있는 환경과 경제개발의 딜레마를 선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지도자들에게 자원, 평등분배, 국가안위의 상호연관성을 자각시킴으로써, 부족한 자원과 환경문제를 두고 증대하고 있는 국가들 간의 경쟁 속에서 한쪽의 잠재적 이득은 다른 한쪽에겐 파국이라는 제로섬 폭력상황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조달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인 메콩 강 유역 개발에 참여하려는 국가나 기업들은 국가간 자원갈등 요소와 환경규제로 인한 재원조달의 지속성 여부 등에 대해 세부적인 연구와 조사를 토대로 진출여부와 투자규모를 결정하는 신중함을 전제로 한다.

메콩 강 유역개발이 내포하고 있는 환경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내 국가간 갈등의 표면화와 국제사회로부터의 외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재원조달이 난망해 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잠재적으로는 인도차이나 지역의 경제성장에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최동주 1998)

1.3. 아프리카의 물 문제와 분쟁

물의 수요는 1950-1990년 사이에 3배나 증가했고, 향후 35년 이내에 현재보다 2배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물의 위기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려면 물 공급이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늘 수 없는 곳, 물 공급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곳, 상호경쟁적인 물 사용처가 상충되고 있는 곳 등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수자원이 부족한 동시에, 국가 간에 수자원이 공유되어야 하는 경우, 수자원의 확보 및 유지와 관련하여 국

가간의 분쟁을 유발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인접국과 수자원을 공유하면서 그 공유수량에 절대적 의존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주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며 수단과 이집트는 그 상황이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하다. 그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물 사용량의 반 이상을 인접국가와 공유하는 국가와 수량

네덜란드	이집트	캄보디아	시리아	수단	이라크
98%	97%	82%	79%	77%	66%

출처: 환경부(2003)

UNEP는 물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전 세계 아동의 수는 매년 4백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물이 없어서 사망하는 5세 미만 영아는 매일 5천 명, 매년 200만 명에 이른다. 이 아동 중 85퍼센트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다. 최근의 자연재해 피해 규모를 유형별로 분석할 경우 가뭄과 그로 인한 기근피해가 가장 심각했는데, 아프리카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의 82퍼센트가 가뭄관련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

통상 1인당 연간 공급가능 수량이 2천m³ 이하일 경우 물 부족의 압박을 받게 된다. 이 수치가 1천 7백m³ 미만이면 '물 부족 위기'로 표현되며 1천m³ 미만이면 실제로 물 부족 상황이 된다. 아프리카의 재생 가능한 수자원은 연 평균 4천 5십 km³이고 2000년을 기준으로 연 평균 1인당 약 5천m³의 물이 공급되었는데, 이는 남미의 연평균 1인당 공급량인 2만 3천m³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아프리카의 지표수와 지하수는 분포가 고르지 않다. 예를 들어 가장 습한 나라인 콩고는 연 평균 국내 재생 가능 수자원이 935km³인 반면, 가장 건조한 모리타니아의 경우 0.4km³에 불과하다.

아프리카의 가뭄을 단순한 자연재해로 보기는 어렵다. 1982년부터 3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수백만 명의 사망이 발생하자 아프리카 가뭄은 다른 각도에서 분석되기 시작했다. 그 원인은 미래의 지구를 위협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과 지구 온난화가 주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프리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의 3.2퍼센트에 불과한데, 그 피해는 가장 크게 받고 있다. 유엔의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초래되어 아프리카 대륙 농경지의 65퍼센트가 매년 생산성이 격감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적절한 급수혜택을 받는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 중 62 퍼센트로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대륙이다. 이러한 사정은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

해진다.

<표 4> 개인별 물 사용량 국가별 분류

물 기근	지부티, 쿠웨이트, 몰타, 카타르, 바레인, 바베이도스,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요르단, 예멘, 이스라엘, 튀니지, 카포베르데, 케냐, 부룬디, 알제리, 르완다, 말라위, 소말리아	1,000톤 미만
물 부족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오만, 키프로스, 남아공, 한국, 폴란드	1,000-2,000톤
물 풍요	벨기에 외 120개국	2,000톤 이상

더욱 심각한 것은 아프리카에서 물 부족을 겪게 될 국가가 2025년에는 현재의 두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예측은 가장 큰 수원인 나일의 유량 감소와 연간 3퍼센트가 넘는 인구증가율에 그 배경을 둔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개인 강수량을 기준으로 볼 때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수단의 경우 심각한 물 기근을 겪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없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물 기근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단 등 나일 유역의 국가들은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상대적으로 수자원 보유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문제는 국가 내의 수자원을 관리하는 정책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특이한 사례로 분류된다. 그러한 정책의 배경은 지리적,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동시에 복잡하게 안고 있는 수단의 고유한 국가적 배경에 근거한다.

<표 5> 인당 식용 가능 수량에 의한 아프리카 국가 분류

괄호 안 단위: annual m³ per capita

물 풍요 국가군	물 부족 국가군	물 기근 국가군
모리셔스(2,047), 에티오피아(2,207), 레소토(2,290), 짐바브웨(2,312), 나이지리아(2,838), 탄자니아(2,924), 부르키나 파소(3,114), 마다카스카르(3,331), 토고(3,398), 가나(3,529), 우간다(3,759), 모잠비크(4,085), 모리타니아(4,387), 세네갈(4,777), 수단(4,792), 베닌(5,625), 니제르(5,691), 코트디브와르(6,177), 나미비아(6,254), 말리(6,729), 차드(6,843), 자이레(27,253), 기니아 비소(32,158), 시에라 리온(28,545), 기니아(39,270), 중앙아프리카공(46,875), 에콰아토리아(85,227), 라이베리아(90,097), 가봉(141,501)	리비아(1,017), 모로코(1,117), 이집트(1,123), 남아공(1,317)	지부티(23), 튀니지(540), 케이프 베르데(551), 케냐(636), 부룬디(655), 알제리(689), 르완다(897), 소말리아(980), 말라위(939)

출처: Ong'wen(1994).

2. 수단 분쟁의 역사

수단은 56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 종족 국가이고 크게는 아프리카의 전통문화와 정서를 이어 온 남부 수단과 아랍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른바 아프로-아랍 권의 북부 수단으로 분류된다.(Deng 1993) 지금의 내전은 1983년에 북 수단에 근거한 현 정부가 샤리아 법을 국가법으로 제정하면서 본격화되었지만, 영토 내부의 종족 간 분쟁은 5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현재 내전 해결의 관건은 국가 내부의 대표적 인구집단인 아랍인과 남부의 기독교 아프리카인, 그리고 동부와 서부의 비 아랍 권 세력 간의 경쟁적 갈등해결이다. 이 세 집단은 같은 목적으로 정치 외교적 이득을 우선 득하려고 하는 경쟁을 하고 있고, 동시에 군사능력의 강화도 외부세력과의 연계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Prunier 1998)

남과 북 평화협상의 주요 쟁점은 남북간의 국경 반할의 경제점, 종교적 자유에 대한 합의 여부, 과도정부 유지 기간에 대한 이견, 연방제의 세부적 성격과 자원의 배분 등이다.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들은 현 정부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로써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측면만을 부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문제는 남과 북의 내전 당사자들이 모두 극심한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공포정치와, 폭력, 그리고 식량공급과 기아를 내전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Soysa 1/99) 그 결과 현재 약 260만 명의 수단 인이 비상수단을 통한 식량공급이 필요한 상태이며, 아동의 3분의 1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1990년 세계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북수단의 경우 인구의 2분의 1이 기아상태에 있으며, 1980년대 중반의 기근으로 인해 약 2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E.M Messer 1998; Devereux 1997, 40)

1980년대 중반의 심각한 기근은 곡물가의 급상승을 초래했고, 내부시장 우호적이라기보다는 교역중심의 식량 공급체계는 식량문제의 악화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현재 수단의 분쟁과 기아는 물리적 형태의 내전, 식량위기, 생태계의 붕괴 등과 같은 혼합적이고 복합적인 배경요인의 산물인 것이다.(Elmekki 1999)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갖는 수단의 면적은 자그마치 2억 5천만 헥타르이다. 북쪽으로는 이집트와 리비아, 동쪽으로는 에리트리아와 에티오피아, 서쪽으로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쪽으로는 케냐와 우간다 등 7개국과 접해있다. 수단은 종교와 인종의 다양성이 있는 반면, 비교적 비옥한 땅과 농산물 생산기반 그리고 정치경제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은 정 반대이다. 정치경제적 열악성은 자원과 관계된 뿌리 깊은 사회갈등에 근거한다.(Goldsmith 2002)

남부 수단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언어와 종교가 일체감을 갖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자본과 연결되어 있는 북부수단에 의해 침탈당하고 착취당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²⁷⁾ 북부는 사회통제력이 강한 중앙집권형인 반면, 남부는 분권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구분은 아랍과 아프리카, 이슬람과 기독교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대칭관계를 틀로 하는 수단 갈등 연구의 전형적 구분이다. 이분법적인 연구 틀보다는 거시적 차원의 기존 틀과 하향 세부화 된 미시적 차원 분석수준의 조화를 염두에 둔 좀더 실용적인 연구 접근의 방향이 필요하다.

식민통치 이전의 시기부터 수단은 여느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외부세력의 착취의 대상이었다. 외부세력은 서구 뿐 아니라 서아시아와 다른 동쪽의 아랍 국가들을 포함한다. 외부침탈의 대상은 자연자원인 상아, 금, 티버가 주를 이루었고, 북아프리카 노예수출의 기지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인적자원의 외부유출이 많았던 국가이다.

자원을 위한 외부의 침탈이 근본 동기였지만 그러한 경험들은 수단에 다양한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터키-이집트의 정복은 이집트에서 빅토리아 호수에 이르는 광활한 영역에 군주제를 확립시켰다. 본래 이슬람 문화가 주를 이루었던 이 지역에 19세기의 경험은 유럽 및 미국에 의한 기독교 문화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기독교 문화의 확산은 백 나일과 청 나일 전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던 교역의 확산과정에서 유럽과 미국의 선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에 반발한 북수단의 정치적 기득세력들은 지하드를 선포하고 19세기 말 마디스트 혁명(Mahdist Revolution)을 주도했지만 종교적으로 이슬람에 완전히 노출되지 않았던 남 수단이 영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영국과 이집트는 1899년 연합통치에 합의했다.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영국은 남 수단이 이집트나 여타 이슬람 국가와의 교역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동부 아프리카의 비 이슬람 국가나 그리스와 시리아의 기독교 상인들과의 교역만을 유도하는 “남방정책”(southern policy)을 추진하자, 이집트와 북수단인들은 저항했다. 20세기 중반들에 진입하면서 많은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종적으로 연관성이 약한 남 수단이 독립운동 연합세력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확인한 영국은 기존의 기득권

27) 생태자원 지역적 편중성과 이로 인한 생태경제학적 차별화와 장기적인 생태계 파괴로 인한 경제사회의 폐해에 대해서는 Daly(1997)를 참조

을 지키기 위해 남북 수단을 통합하는 새로운 남부정책을 모색했다.

이러한 영국의 정책으로 1947년에 이른바 유바 회의(Juba Conference)를 통해 남 수단을 수단의 정치시스템에 통합시키는 작업에 성공을 했다. 경제적으로는 독립적 운용이 불가능한 남 수단이었지만 정치시스템 내에서는 북수단과 동등한 위치를 확보하면서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띠게 된 것이다. 1951년에 헌법위원회가 남 수단을 위한 특별입법을 추진했으나, 남수단과의 연방을 전제로 한 새로운 정치체제의 확립에는 실패했다. 더욱이 1953년의 영국-이집트 합의(Anglo-Egyptian Agreement)도 남수단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반발하는 남수단의 폭력적 저항은 1955년 에쿠아토리아(Equatoria) 폭동을 계기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긴장한 북수단의 정치리더십은 남수단을 배려한 연방제의 성립을 추진하였고, 1956년 1월 1일 독립선언에 남수단의 대표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1958년 이브라힘 아부드(Ibrahim Aboud) 장군이 이끄는 군부세력의 쿠데타가 성공하면서 남수단의 이슬람 화를 강력히 추진하자, 독립 이전 구성되어 상당한 군사능력을 갖춘 남수단의 아냐 니야(Anyanya: '뱀의 독') 저항군이 수단의 국가체계를 위협하는 저항군사 세력으로 성장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결국 1972년 북 수단은 아디스아바바 협약에 의해 남수단의 지역자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남수단의 행정체계를 주도하는 관료 및 행정가들은 모두 북수단 집권세력에 의해 임명되는 이른 바 까드레(cadre)들이었다. 당시 북수단의 대통령은 모든 통치관련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 통치는 남수단의 현실적인 자치능력을 보장해주지 않은 것이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수단의 내전은 알 마디(Sadiq Al Madhi) 수반이 이끄는 민족 이슬람 전선(NIF: National Islamic Front)과 가랑 드 마비오르 대령(Dr Colonel John Garang de Mabior)이 이끄는 수단 민족해방운동 군대(SPLM: Sudan People's Liberation Movement)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SPLM이 우호적인 동맹 세력들을 참여시키면서 주도한 이른바 코카 댐 회의(Koka Dam Conference)는 샤리아를 국가헌법의 기본철학으로 하는 데 합의했고 알 마디의 퇴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알 마디의 거절로 새로운 통합된 수단 통치체제의 창출을 유도하는데 실패했다.

북수단의 저항세력인 민족자유동맹(NDA: National Democratic

Alliance)과 SPLM 사이에 1995년에 조인된 아스마라 합의(Asmara Agreement)는 수단의 남북 갈등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합의는 중앙정부의 집중된 권위를 남과 북의 각 세력들이 분권 형태로 나누는 통치체제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제안에는 생태적이고 자연적인 국가자원의 합리적 분배에 대한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광물자원의 경우 중앙정부가 관리하되, 이 자원의 생산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분권화된 각 지방 세력에 분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외의 지역별 천연자원은 해당지역 분권화된 정부의 소유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생태적이고 자연적인 국가 환경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근본적인 수단의 평화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아스마라 합의는 가장 합리적 대안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거절로 현실화되는 데는 실패했다.

1998년에 SPLM과 중앙정부 간에 이루어진 카르토움 평화 합의(Khartoum Peace Agreement)는 남수단의 문제에 대한 공동위원회를 설립했고, 4년간의 연방통치체제를 시험적으로 운영한 후 남수단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안에 대한 세부적 합의이다. 이 합의는 연방 내의 정치 사법체계에 남 수단 대표들이 인구비례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남 수단 인구나 북 수단 인구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남수단의 이익을 적절히 대변하는 안이라고 보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또한 아스마라 합의와는 다르게 카르토움 합의는 모든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 및 운영권을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광물자원과 원유에 대한 통제 및 관리운영의 권한은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어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주장하면서 SPLM의 분파를 지휘하는 케루비노 볼(Kerubino Bol) 장군과 리에크 마차르(Riek Machar)가 이끄는 세력은 다시 군사적 저항 행위를 재개했다.

비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단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 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배경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제공하는 것들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미국은 1989년 카터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간 개발 파트너 포럼(IPF: IGAD(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Partners Forum)을 주도하면서 수단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제안을 해오고 있다. 2002년 스위스 포럼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 포럼의 경우 단기적인 군사행동 자제를 위한 중재에는 성공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외부국가들의 인본주의적 원조에도 문제가 있다. 우선 절대적으로 적은 원조액의 문제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강제이주민을 양산하면서 극빈국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수단에 대한 원조는 선진국의 전략적 이익이 적은 만큼 그 액수도 매우 미미하다. 한편 UN 기구들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나 비정부 민간기구들이 민간 차원의 원조를 시도해왔으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해 지배되어 온 중앙정부는 종교적 이유를 들어 원조 자체를 반대하는 정서가 의사결정 과정에 팽배하다. 민간기구의 경제원조가 특정지역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경우, 그 자금 자체가 내전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고 적대적 상황에 있는 반군들은 원조지원 기관에 대해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Bolesta 2002)

아프리카 내부에서의 노력도 아부야 평화 회담(Abuya Peace Talks)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지만, 국가별로 수단의 원유 수출, 종교적 연관성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대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단 평화협상을 위한 IGAD에 참여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주로 주변국들인 지부티,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우간다 등 나일지역 국가들이다. 이집트와 리비아가 주도하는 중재안도 2000년 이후 제안되고 있다. 이 중재안은 중앙정부와 북부의 저항세력인 NDA와 남수단의 SPLM 간의 갈등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이슬람 국가인 두 국가의 노력은 종교적 자주성을 모색하는 남수단의 정서와 갈등하면서 현실성이 없는 접근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원유생산지역을 중심으로 치열한 전투가 재개되고 있지만 2002년 7월 20일 수단 정부와 SPLM 간에 합의된 이른바 마차코스 프로토콜은 수단 내전 종결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대안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양측은 남수단의 인구비례 대표 수의 현실화를 위해 내전 중 강제이주 당한 약 3백만 명의 인구를 현 인구에 포함시키는 대안이 중앙정부에 의해 제안되었고, 군사시설에 대한 외국의 모니터링을 상호 간에 인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2008년까지의 원유생산으로 인한 이익을 양측이 공유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합의가 지연되면서 군사적 충돌이 원유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약술하여 살펴 본 수단 내전은 몇 가지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조화로운 수단의 건설을

위해서는 경제 및 천연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국가 부 및 권력의 효율적 배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갈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및 정치적 권력의 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수단의 내전은 수자원을 포함한 생태적인 국가자원에 대한 관리의 권한과 연계되어 있다.

3. 수단 내전과 물

3.1. 나일과 내전

수단의 정치적 영향력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건조한' 북부와 중부의 엘리트들이 '습한' 남부를 향해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천혜의 자연 생태적 환경을 향한 북부 리더십의 권력 향배는 남부의 분열과 착취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궁극적으로 남 수단 경제의 피폐화를 가져왔다. 지구상의 주요 강 중 유일하게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나일은 강 하구를 중심으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온 중상주의적 리더십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 자연적으로 천연자원이 풍부한 남 수단은 북 수단 및 강 하구인 이집트의 상인에 의해 지원을 받는 정치리더십의 중앙집권적 영향력에 의해 지배받아왔다. 중앙집권적 권력은 자원을 활용한 남수단의 독자적 개발이나 발전을 방해하면서 농업생산성 위주의 정책을 적용시켜왔다.(Deng 1995, 446)

더불어 청 나일과 백 나일이 만나는 지역 근방의 건조지역은 남 수단 세력끼리의 교류나 정치경제적 협력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북수단의 중앙집권화 되고 일체감의 정도가 높은 사회와 남수단의 분열되고 정체성이 없는 정치경제적 여건의 원초는 바로 국가를 가로지르는 하천의 흐름과 방향 그리고 교차지역의 지리적 여건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런 지리적 여건 하에서 남과 북은 경쟁적으로 서로의 일체감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의 종교적 영향력을 활용하였으며, 그런 역사적 경험은 탈식민지 이후에도 정치적으로 활용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단의 내부 갈등은 지리적이고 자연 환경적 요인이 정치사회적 혼란의 원초적 요인이며, 강수량의 감소, 농업지역의 피폐화, 기술 경제적 차원의 스테그네이션이 조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Verney 1995)

북수단의 농지와 천연자원을 향한 ‘남진’은 1974년 이후 3년 간 지속된 이른바 사헬 가뭄(Sahel famine) 이후이다. 내전은 남 수단 지역 난민을 발생시켰고, 극심하게 열악한 남수단의 경제상황은 자발적인 이주민들도 동시에 발생시켜 남 수단 출신 인구의 북 수단 이주가 자의타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²⁸⁾

자연 생태적 환경을 둘러싼 국가내부의 지배구조 상의 갈등은 자연 자원이 수단의 분쟁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우선 남수단의 토지, 수자원, 그리고 광물자원은 북수단의 산업 개발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북 수단 인구의 급증은 이러한 1차 자원 생산능력의 급속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자원보유지역과의 협의 없이 국가에 의해 직접 발굴, 활용되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의 지속은 수자원과 같은 한정된 자원의 집중적 소비를 초래하며, 이는 곧 지역간 정부와 지방간의 첨예한 긴장관계를 초래한다.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자원 개발 및 활용과 중앙집권적 지배구조는 터키-이집트 점령시대로부터 유래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Sen 1981)

나일이 수단 영토를 가로지르는 형태를 보면 수단의 수자원 부족현상은 상상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실은 심각하다. 우선 나일은 수평형 지형을 띠고 있어 물의 흐름이 매우 느다. 따라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카르토움 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중앙정부는 인공저수지를 개발하여 물을 저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상류의 남 수단 세력들은 남쪽의 습지를 개발하여 안정된 수량을 확보하려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습지의 개발에 대한 반발은 장기적으로 유속을 느리게 하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수단의 수자원 관리시스템은 정치적 한계를 초월한 조기 합의가 시급하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수자원 관리정책으로 인한 부작용과 내전 촉발요인으로서의 중요성은 종글레이 운하 계획으로 확인될 수 있다. UNDP의 지속적인 수자원 계획 관련 보고서는 수자원 활용과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과 연관된 모든 이익집단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의 집행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종글레이 운하

28) 북 수단으로 이주한 남 수단 인구들은 카르토움 지역으로 유입되어 빈민가를 이루거나, 북 수단에서 유목업에 종사하며 극빈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80년대 극심한 기근 이후 강제이주 당한 유목민의 실태에 대해서는 Haug(2000)을 참조.

계획은 이러한 견해와 상반되는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중앙집권적으로 시행되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종글레이 운하 건설 계획은 1904년 이집트의 물 장관인 윌리엄 가스틴(William Garstin) 경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계획은 수드 습지에서 유실되는 수량을 운하와 다량의 댐 건설을 통해 유속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수량을 시기와 수요에 따라 조절한다는 원대한 계획이다. 1948년에 수단과 이집트에 의해 진행된 종글레이 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조사는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누에르(Nuer), 딩카(Dinka), 실루크(Shilluk) 등 주요 거주지역 생태계의 완전소멸은 물론 수드 습지의 생태계 파괴도 자명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973년 이 운하건설계획은 시작되었으나, 남 수단으로부터 강한 반발과 저항을 불러왔다. 남수단인들은 운하의 건설이 자신들의 주요 생계수단인 야생동물의 생태계를 파괴하여 자연스런 이동을 방해할 것이고, 홍수 시 운하의 범람이 초래할 거주지 파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통적 거주지역으로부터의 이전이 불가피하며, 운하건설을 위한 백만이 넘는 이집트 인력의 파견은 지역의 노동력 동원을 외면한 채 이집트인의 강제적 이주를 초래해 남수단이 이집트인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에 놓일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한 것이다. 다소 수정된 형태로 계획이 진행되자 결국 SPLM은 1983년과 84년에 대대적인 공사지역 공격을 감행하여 공사를 중단시켰다. 국가의 총체적인 수자원 관리 정책에서 지역 현지인들을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수드 습지 지역에 거주하는 수단 최대의 부족인 딩카와 누에르 간의 갈등은 또 다른 형태의 수자원 관련 갈등이다. 두 부족은 홍수기와 가뭄기에 적합한 각각의 독특한 경작방식을 전통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경쟁과 갈등을 지속해온 관계이다.²⁹⁾

호주의 대표적인 생태경제학자인 마이크 영(Mike Young) 교수는 생태경제학적 차원의 국가사회적용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일곱 항목을 충족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Young 1996, 45-61) 첫째는 경제적 효율성이다. 생태적 변화를 추구하거나 보존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경제적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생산의 효율성(productive efficiency)과 분배의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에 대한 동시 평가를 의미한다. 둘째는 다이내믹하고 지속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의 존재 여부이다. 기술적인 문제

29) 상세한 역사적 배경은 Kelly(1985)를 참조.

의 개선과 생물다양성의 증대, 가격과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부응능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국가 내부의 어떤 계층이나 세대도 국가의 생태관련 정책으로부터 특정한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는 생물의 원형보존과 다양성의 보존이 어떤 기술적인 생태관련 정책에 의해서도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다섯째로 댐의 건설 등 과학기술의 적용이 적용 이전의 상황보다 열악한 생태경제학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재검토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여섯째로는 정부의 정보제공과 모니터링 관련된 정책들은 충분히 비용 효율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지역의 이익집단들과의 사전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합의를 근거로 할 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곱 번째는 지역 간의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들은 철저한 사전조율을 거친 후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전제조건들을 상정하고 수단 내전에 대한 생태경제학적 차원의 분석결과는 상술한 바와 같이 매우 부정적이다. 특히 6, 7번 조건에 대한 불 충족은 직접적인 내전 지속 및 심화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나머지 조건에 대한 충족여부는 수단의 경우 6, 7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가능하다.

3.2. 수단 주변국과의 갈등

나일은 고대 셈어로 강 유역을 의미하는 나발(Nabal)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 강은 위도 35도를 지나며 지구상에서 가장 긴 강으로 그 길이가 6천 8백 킬로미터에 이른다. 나일 강은 탄자니아, 부룬디, 르완다, 케냐, 우간다, 자이레, 에티오피아, 수단, 이집트 10개국을 통과하는 국제수역이기도 하다.

나일 삼각주에서 강을 거슬러 오르면 엘 콰히르(El Qahir)와 카이로를 지나 동부사막을 가로 질러 이집트 역사 상 가장 웅장하다고 하는 명소들을 지나 아프리카의 중앙으로 향하고 있다. 수단에 들어오면서 고대 제국인 쿠슈와 메로에가 번영했던 지역들을 지난다. 이 제국들은 때로는 이집트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 이집트를 지배하기도 했던 제국들이다. 카르토움을 지나면서 나일은 백 나일과 청 나일로 나뉘어 진다. 백 나일은 수드(Sudd) 습지를 지나 대호(大湖, Great Lakes)를 지나 빅토리아 호수의 진자(Jinja)와 나일의 실제원류인 부룬디 산맥에 이른다.

다.

청 나일은 에티오피아로 이어진다. 에티오피아 문화는 유대의 왕이었던 솔로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에티오피아의 풍부한 수자원이 나일로 넘어 들어가 삼각주에 부엽토를 침전시켜 비옥한 이집트문명을 가능케 했다.(박희경 2001, 38) 실제로 나일 하류 물의 3분의 2는 청 나일과 아트바라(Atbara)라고 하는 지류에서 나오는데 이들은 모두 에티오피아에서 발원한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간에는 종교적 갈등보다 훨씬 더 원초적 갈등의 원인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집트에는 사막 층에 존재하다가 사라지곤 하는 미미한 대수층 외에는 수원이 없다. 1959년 수단과의 협정에 따라 이집트는 1년에 550억 톤의 물을 할당받은 반면, 수단은 185억 톤을 사용한다. 이집트는 USAID의 예측과 같이 21세기를 전후하여 16-30%의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나일 유역의 다른 국가들도 수요는 증대하고 있어 물 분쟁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탄자니아, 부룬디, 르완다, 케냐, 에티오피아는 이미 그 상태가 심각하다.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상류에서의 인위적 수량변경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다. 1980년대 중반 물 위협을 느낀 이집트는 수단의 수도인 카르툼(Khartoum)에 대해 대대적 폭격명령을 시도했다가 멈춘 적이 있다. 아직 이집트와 상류국가들 간의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수단과 에티오피아 모두 극심한 내전으로 인한 빈곤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으면서 대규모 도수공사를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이집트는 이들 두 국가의 내전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두 국가의 본격적인 국가경제 개발이 미칠 수 있는 수량의 변화에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³⁰⁾

나일 유역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계획은 1세기 이상 이집트와 수단을 지배했던 영국에 의해서였다.(Collins 1990) 영국은 환경적인 악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연 댐과 습지의 제방들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집트를 간섭하기 시작한 영국은 수단을 장악하면서 나일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감행했다. 1898년에 앵글로-이집트 군에 의해 마디즘(Mahdism)을 추구했던 아메드 정권이 패퇴하면서 공

30) 현재도 이집트, 에티오피아, 수단 간의 긴장관계는 수자원을 둘러싸고 지난 2천 년 동안 지속되어온 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역사적으로 이집트의 통치자들은 여러 차례 수단을 정복함으로써 나일 유역을 그들의 지배 하에 통합시키려고 했다. 수단에서는 에티오피아의 강우량이 감소해 예년만큼 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이 상식이었다. 이집트의 술탄은 에티오피아의 왕에게 물을 막지 말도록 간청하는 사절단을 여러 번 보냈다.

병대는 습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1904년에 영국 공병대는 습지관통 수로를 건설했고, 나일 전체 물 흐름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를 점령하지 못한 영국은 결국 1902년에 청 나일을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게 되었다. 영국은 1929년에 나일 물 협정을 성사시켰지만 에티오피아의 비협조로 본격적인 공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1959년에 이집트와 수단은 나일 수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협정에 조인하면서 1929년 조약에서 40억 톤 밖에 보장받지 못했던 수량을 185억 톤으로 조정했다. 수단은 로지에레스 댐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고 종글레이 운하사업도 건설이 시작되었다. 이집트는 아스완 하이댐의 건설이 용이해졌다. 그러나 로지에레스 댐의 건설은 해당 지역 원주민인 10만 누비아 족의 강제이주를 전제로 이루어졌는데, 수단 정부의 보상을 조건으로 이주했던 누비아 족은 현재까지 수단 정부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남부 반군의 주요한 병력이 누비아 족인 것은 이러한 역사적 환경에 연유한다.³¹⁾

아스완 하이댐은 1970년에 완공되었고 총 길이가 600킬로미터이며 폭은 50 킬로미터인 나세르 호수를 이루게 되었다. 같은 해에 이집트와 수단은 공동으로 종글레이 운하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착수했으나 수단 반군의 방해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다. 약 1억 달러에 해당하는 외부원조에도 불구하고 양국 공동 소유의 운하는 건설에 실패하고 만 것이다.

이집트는 현재 농업용수, 가정용수, 산업용수로 활용하기에는 협약에 의한 수자원이 절대 부족한 상태이므로 지하수와 자연강우로 겨우 균형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이집트는 2000년을 기준으로 740억³m의 소비량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2005년까지 120만 헥타르를 개간할 예정이어서 더 많은 수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증가하는 수자원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이집트는 연간 100억³m의 수자원을 추가로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개발정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농지개간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한편 수단은 경작지의 75퍼센트가 강수량에 의존하고 있으나 나일 강 물로 경작되는 지역의 전체 생산량은 50퍼센트에 이른다. 향후의 수리답 확대 계획이 주로 나일 유역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현재 수단의 물 소비량은 증발량과 수로에서 유실되는 양을 제외하고 연간 약

31) 아프리카 환경난민 발생의 생태적 배경에 대해서는 최동주(2003)를 참조.

180억 m^3 로 추정된다. 이는 1959년 협약의 할당량 185억 m^3 을 육박하는 수치이다. 수단은 경작지 확대계획의 범위에서 최대치로 연간 100억 m^3 의 물을 더 필요로 한다. 전력생산에 필요한 수량을 고려치 않더라도 인구증가와 더불어, 건조화, 사막화, 연평균 강수량 감소 추이 등을 감안할 경우 그것보다 44억 m^3 의 물이 수단에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2010년 정도에 1억에 이르는 인구를 갖게 될 에티오피아도 인구증가에 대비한 경작지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경작지의 산성화와 사막화를 수반하는 건조로 인해 많은 경작지가 황폐화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새로운 관개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단과 이집트는 관개농업의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 수단의 경작지 증가는 이집트 물 공급량에 영향을 줄 것이고, 에티오피아의 물 소비량 증가는 댐 건설을 촉진시킬 것이며, 이는 수단과 이집트 물 할당량의 감소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단과 이집트는 에티오피아의 청 나일 통제권에 대해 공격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금융기구와 유럽, 미국의 적극적 경제지원으로 개발계획을 추진 중인 이집트가 그 동안의 나일 수량에 대한 독점적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천만다행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집트는 수단과 에티오피아의 내전과 경제적 침체라는 불안정 요인을 배경으로 수량 확보 협상에서 항상 우위를 점해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수단,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의 반군세력을 지원하면서 가장 시급한 수자원의 확보를 위해 지역의 불안정을 조장해온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이집트 외교정책 상의 선회는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에서 남아공이 유지해오던 많은 정치경제적 독점을 포기하는 현상에 자극 받은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Global Policy Forum 2000) 또한 남아공이 독점해오던 서방 국가들의 직접투자에 대해 선진국의 압력을 받은 남아공이 이집트에 대해 분배의 배려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정책의 전환점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외부자본의 영입에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지역의 안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이집트의 수자원 지배정책의 완화와 평화적 해결점의 모색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집트는 수단, 에티오피아와 1993년에 나일유역 이니셔티브(Nile Basin Initiative)를 통해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추진하고 있다. 수자원을 둘러

싼 지역 내 불안정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이집트의 정책적 의지와 정치적 안정을 통해 새로운 경제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나일 상류 국가들의 이해가 공유되는 전조라고 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들 세 국가와 대호 연안의 부룬디, 콩고공화국,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등도 이러한 이집트의 새로운 모색에 적극 호응하고 있어, 아프리카 대륙 내의 소지역주의의 창설마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³²⁾

V. 결론

탈냉전 시대 지역학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연구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간안보와 INGOs의 학술적 연관성을 토대로 한 새로운 아프리카 지역학 교육과정의 창출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과거의 횡적인 학문적 결합이 본 교육과정에서는 횡과 종의 방향, 즉 관련 사회과학 뿐 아니라 관련 자연과학 분야와의 자연스런 결합과 협력(Cross-disciplinary)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따라서 안보에 대한 기존의 현실주의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이 인간개발과 생존 중심의 문제를 축으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다자간 협력, 즉 주권국가간의 이익조정을 중심으로 한 기존 국제기구연구 방향의 수정이 요구된다.

특정지역이나 국가의 내전에 대한 연구는 정치사회적, 경제적, 인종문화적 차원의 접근을 근간으로 삼아왔다. 특히 저개발지역인 아프리카나 정서적으로 원리주의자로 분리되는 중동지역의 경우 ‘예외주의’(exceptionalism)라는 문화적 절대성 혹은 우월성이 연구자의 보편적 관점을 방해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이미 많은 국제분쟁이 특정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국가간 혹은 지역간의 경쟁구도에서 유발하는 사례를 우리는 경험했다. 중동 분쟁이 원유와 수자원을 둘러싼 분쟁이라는 진실에 대한 검증은 이미 보편적 인정을 받고 있다.

또한 강대국의 전략적 이익이 침해하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관심이 저조한 저개발국들의 지속적인 분쟁발발과 심화의 배경은 종교와 인종이라는 대칭적 구도의 설정이 가능한 개념들을 위주로 분석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도 국제분쟁 연구의 지난 경향과 그 궤를 같이한다. 그러

32) 상류국가들의 입장이나 정책적 변화와 대응에 대해서는 Abate(1995); Godana(1985); Alemu(1995); Allan(1999)을 참조.

나 정치, 종교, 인종적 차원의 거시적 배경과 더불어 분석수준을 한 단계 낮추어 미시적 접근을 연구과정에 도입할 경우, 저개발국 내전에 대한 연구물의 성과는 배가될 수 있다.

수단 내전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요인과 현상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내전 협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다름 아닌 수자원을 포함한 천연자원의 공평한 배분을 둘러싼 세력 간 경쟁과 갈등이라는 것을 본 연구는 밝히고 있다. 수단의 내전을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는 이집트의 정책기저도 다름 아닌 나일 수량의 독점적 확보와 유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특정 생태환경과 자원에 대한 경쟁구도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간 혹은 내부 세력 간 갈등의 지속은 환경의 결핍이나 자원의 고갈상태에 그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기존 환경과 자원의 공유와 효율적 관리체계의 선행에 있다는 평범한 지식을 수단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판석/사득환. 1998 겨울.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와 개념정립.” 『한국정치학회보』 . 32(4).
- 나카무라 오사무 저. 전운성 역. 1999. 『경제학은 왜 자연의 무한함을 전제로 했는가』 . 한울.
- 노진철. 1997. 겨울. “환경문제에 대한 정치의 적응능력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 30(4).
- 박희경, 최동진 역. 마크 드 빌리어스 저. 2001. 『물의 위기』 . 세종연구원.
- 이신화. 1998. “대량 탈북사태에 대한 조기경보: 환경난민의 개념을 적용하여.” 『국제정치논총』 . 38(2).
- 최동주. 2003. “아프리카 난민문제에 대한 소고: 정치적 배경에서 생태적 배경으로의 중심이전.” 『한국아프리카학회지』 . 18.
- 2002. “중동 분쟁과 나세리즘.” 『한국아프리카학회지』 . 16.
- 1998. “메콩 강 유역 개발과정에 있어서의 환경·자원 갈등문제에 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 6.
- 환경부. 2003. 『세계 물의 해 자료집』 .
- Allan, J. Anthony. "Middle East Water: Local and Global Issues." SOAS Mimeo.
<http://www.soas.ac.uk/Geography/WaterIssues/Papers/9508ta1_01.html>
- Arnold, Matthew B. 1998. *The Next Bottom Line: Making Sustainable Development Tangible*. World Resources Institute. <<http://www.wri.org/wri/wri-pubs.html>>

- Abate, Z. 1995. "Integrated Development of Nile Waters." in P.P. Howell and J.A. Allan, *The Nile: Sharing a Scarce Resour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27-242.
- Allan, Tony. 1999. "Water in International Systems: A Risk Society Analysis of Regional Problemsheds & Global Hydrologies." *SOAS Occasional Paper No. 22*. March.
- Allan, J. A. 1990. "The Nile Basin: Evolving Approaches to Nile Waters Management." *SOAS Occasional Paper 20*. June.
- Alemu, S. 1995. "Problem Definition and Stakeholder Analysis of the Nile Basin" paper presented at the Third Nile 2002 Conference held in Aruba, Tanzania. 13-15 February.
- Baskin, Gershon. 1992. "The West Bank and Israel's Water Crisis." *Israel-Palestine Issue in Conflict Issue for Cooperation*. 1(2).
- Bolesta, Andrzej. April 2002. "Effective Humanitarian Assistance to Southern Sudan: The Legal, Political and Economic Constraints." *TIGER Working Paper Series, No. 18*.
- Bulloch, John and Adel Darwish. 1993. *Water Wars: Coming Conflicts in the Middle East*. London: Villers House.
- R.O. Collins, 1990. *The Waters of the Nile: Hydropolitics and the Jonglei Canal, 1898-1988*, Oxford: Clarendon Press.
- Cooper, Chester L. 1997. "Sustainable Development: A Slogan or a Strategy?"
<<http://www.his.com/~cosmos/cooper.html>>
- Daly, H. E. 1997. "Consumption: Value Added, Physical Transformation and Welfare," in R. Constanza. et.al. *Getting Down the Earth: Practical Applications of Ecological Economics*. Island Press.
- Deng, F. M. 1995. *War of Visions: Conflict of Identities in the Sudan*, The Brookings Institute.
- , 1993. *Protecting the Dispossessed: A Challeng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Brookings Institute.
- Devereux, S. 1997. "Famine in the Twentieth Century" *IDS Working Paper 105*. IDS.
- Elmekki, A-G. 1999. "Food Crisis: Their Roots in a Country's Political and Developmental Crisis." in M. Suliman, *Ecology, Politics and Violent Conflicts*. Zed Books. pp. 228-259.
- Falkenmark, M. 1997. "Water Scarcity: Challenges for the Future." in E.H.P. Brans et.al. *The Scarcity of Water: Emerging Legal and Policy Responses*. London: Kluwer Law International.
- Geisler, Charles and Ragendra de Sousa. 2000. "Your Park, My Poverty: Using Impact Assessment to Counter New Form of Environmental Refugeeism". in *Protected Natural Areas and the Dispossessed*. edited by S. Brechin and P. West. Chapter 11. Albany: SUNY Press.
- Global Policy Forum. 2000. "Nile River Politics: Who Receive the Water?".
- Godana, B.A. 1985. *Africa's Shared Water Resources: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Nile, Niger and Senegal Rivers Systems*. Francis Pinter and Lynne Rienner.
- Goldsmith, Paul, Lydia A. Abura and Jason Switzer. 2002. "Oil and Water in Sudan." in Jeremy Lind and Kathryn Sturman. ed. *Scarcity and Surfeit: The Ecology of Africa's*

- Conflicts*. ACTS and ISS, 2002
- Haug, Ruth. 2000. "Livelihood Security Among Pastoralists in Northern Sudan: Post-Hunger Development in a Country at War." *Noragric Working Paper No 19*. NLH. May.
- Kelly, R. 1985. *The Nuer Expansion: The Structure and Development of An Expansionary System*.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ennedy, Paul. 1994. *Preparing for the Twentieth Century*. Fontana Press. Ch. 6.
- Messer, E.M. 1998. "Breaking the Link Between Conflict and Hunger." *2020 Vision Discussion Paper 24*. IFPRI.
- Ohlsson, L. 1999. *Environment, Scarcity and Conflict: A Study of Malthusian Concerns*. University of Goteborg Press.
- Ong'wen, Oduor. 1994. "NGO Experience, Intervention, and Challenges in Water Strain, Demand and Supply Management in Africa," Africa Water Network, Kenya.
- Prendergast, J. et.al. 2002. *God, Oil and Country: Changing the Logic of War in Sudan*. ICG, London.
- Prunier, G. 1998. "Sudan: The Dangers of A Tactical Peace," UNHCR Internet Source.
- Reitan, Eric. 1998. "Pragmatism, Environmental World Views, and Sustainability." *Electronic Green Journal*. Special Issue 9. December.
- , 1998. "Our Unsustainable Present: Why, and What Can We Do About It?" *Electronic Green Journal*, Special Issue 9. December.
- The Report of the South Commission. 1990. *The Challenge to the South*. Oxford University Press. Ch. 6.
- Sen, A. 1981. *Poverty and Famine: An Essay on Entitlements and Depriv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Soysa, I. and N.P. Gleditsch. 1999. "To Cultivate Peace: Agriculture in A World of Conflict." *PRIO Report*. 1/99.
- Verney, P. 1995. *Sudan: Conflict and Minorities*.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 Yaar, Itamar. 1995. "Water Disputes As Factors in the Middle East Conflicts." .
<http://www.soas.ac.uk/Geography/WaterIssues/Papers/9508ta1_01.html>
- Young, Mike. 1997. "Water Rights: An Ecological Economics Perspective." *Working Paper No. 9701*. CRES. ANU.
- , 1996. "The Design of Fishing Right Systems - the NSW Experience." *Ocean and Coastal Management*. 28: 45-61.